

# 모의고사

## 01회

시작 시간	시	분	초
종료 시간	시	분	초
총 소요 시간		분	초

### 00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나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 아이들은 놀이공원에 가기를 기대했다.  
 ㉢ 이웃집 꼬마는 마음씨가 참 착하다.  
 ㉣ 우리는 그가 성실함을 알고 있다.

- ① ㉠: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② ㉡: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③ ㉢: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홑문장이다.  
 ④ ㉣: 안은문장의 주어와 안긴문장의 주어가 같다.

### 002

밑줄 친 부분이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갑작스러운 인기척[인끼척]에 놀랐다.  
 ② 유리잔[유리잔]에 주스를 가득 따랐다.  
 ③ 그녀는 1학년 담임[다님]을 맡아 설레었다.  
 ④ 그는 속임수[소김수]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 003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이웃과 가끔 인삿말을 주고받는다.  
 ② 친구를 만나는 횃수가 부쩍 줄었다.  
 ③ 땃나물의 향기와 맛을 잊을 수 없다.  
 ④ 우리는 먼 훗날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 004

밑줄 친 말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곰살궂게 이모의 허리서부터 팔다리를 주물렀다.  
 - 박완서, 「도시의 흥년」에서 -

- ① 꼼꼼하고 자세하다.  
 ②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  
 ③ 말이나 행동이 곱고 우아하다.  
 ④ 행동이나 말, 생각이 쓸데없고 싱겁다.

### 005

다음 개요의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I. 처음

: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 II. 중간

-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원인  
 가. 국내 중소기업 생산직의 인력난  
 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의 선택  
 다.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비자 발급의 어려움 ..... ㉠
-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오해 ..... ㉡  
 가. 국내 문화에 대한 부적응  
 나. 과중한 노동 시간과 저임금  
 다. 내국인 직원에 의한 신체 및 정서적 폭력
- 국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제도 마련 ..... ㉢  
 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  
 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의식 개선 교육 강화

#### III. 끝

: ..... ㉣

- ① ㉠은 상위 항목인 'II-1'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② ㉡은 하위 항목들을 포괄할 수 있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및 실태'로 수정한다.  
 ③ ㉢은 'II-2-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술 습득을 돕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으로 수정한다.  
 ④ ㉣은 전체 내용을 고려하여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인격과 권리 강조'를 제시한다.

## 006

다음 토의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자:** 오늘은 ‘국내 미세먼지 원인과의 대책’을 주제로, 김□□ 박사님, 최△△ 박사님을 모시고 토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내 미세먼지 문제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 박사님, 최 박사님 순으로 말씀해 주시죠.

**김 박사:** 중국이 가파른 경제 성장을 하며 고농도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서풍이 부는 계절이면 미세먼지를 겪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최 박사:** 우리 정부와 미국 항공 우주국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화확 반응을 통해 증가하는 2차 미세먼지의 경우 국내 오염원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배출도 중국에 못지않다는 말입니다.

**사회자:** 그러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번에는 최 박사님, 김 박사님 순으로 말씀해 주시죠.

**최 박사:** 미세먼지 저감 장치 설치와 관리를 법제화하여 산업, 수송, 발전 부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 부분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신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합니다.

**김 박사:** 미세먼지 고농도가 아닐 때는 국내 오염원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 박사님의 말씀처럼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는 중국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하여 중국 현지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방청객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중:** 저는 미세먼지 하면 중국부터 떠올렸는데 국내 오염원의 비중도 크다고 말씀하셔서 놀랐습니다. 국내 오염원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 ① ‘사회자’는 질문의 형식으로 토의를 진행하며 전문가의 발언 순서를 지정하였다.
- ② ‘최 박사’는 공식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 ③ ‘김 박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였다.
- ④ ‘청중’은 전문가의 발언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을 하였다.

## 007

(가)~(라)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찬노미라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미라  
무심(無心)흔 들빛만 싣고 ㉠뵈 배 저어 오노미라

(나) 내 ㅁ음 버혀 내여 ㉡뵈 들을 밍글고져  
구만 리(九萬里) 장천(長天)의 번 듯이 걸려 이서  
고온 님 겨신 곳에 가 비최여나 보리라

(다) 반중(盤中) ㉢조홍(早紅)값이 고아도 보이느다  
유자(柚子) | 안이라도 품엄 죽도 ㅎ다마는  
품어 가 반기리 업슬식 글노 설워ㅎ느이다

(라)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피헤 매게 쫓친 가토리 안과  
대천(大川) 바다 한가운데 일천 석 시른 비에 노도 일코 닻도  
일코 농총도 근코 돛대도 짓고 치도 싸지고 브람 부러 물결치고  
안개 뒤섯게 즈자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나문되 사면이 거머  
어득 천지(天地) 적막(寂寞) 가치노을 췌느되 수적(水賊) 만난  
㉣도사공의 안과  
엇그제 님 여흰 안히야 엇다가 ㅁ을ㅎ리오

- ① ㉠: 세속적 욕심을 초탈한 화자의 무욕의 태도를 함축한다.
- ② ㉡: 임을 향한 화자의 변함 없는 사랑을 형상화한다.
- ③ ㉢: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여 화자의 슬픔을 유발한다.
- ④ ㉣: 임을 잃은 화자가 동일시하고 있는 절박한 처지를 의미한다.

## 008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살림살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하여 밤낮으로 생각해 보아도 뽕나무 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이제야 뽕나무를 심어 생활을 영위할 제갈공명의 지혜보다 더 위에 갈 것이 없음을 알았다. 과일 따는 일은 본디 깨끗한 직업이지만 장사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뽕나무 심는 거야 선비의 명성을 잃지도 않고 큰 장사꾼의 이익에 해당되니 천하에 다시 이런 일이 있겠느냐?

남쪽 지방에 뽕나무 삼백육십오 그루를 심은 사람이 있는데 해마다 삼백육십오 껌미의 동전을 얻는다. 일 년을 삼백육십오 일로 보면 하루에 한 껌미로 식량을 마련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궁색하지 않을 것이요, 아름다운 명성으로 세상을 마칠 수 있으니 이 일은 가장 힘써 배워야 할 일이다.

- ① 선비는 가난하더라도 체면을 지켜야 한다.
- ② 사적으로 얻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 ③ 뽕나무 심는 일로는 큰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
- ④ 명성을 위해서 살림살이에 신경 써서는 안 된다.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 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最後)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露嶺)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  
한 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를 만(灣)의 파선도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갈았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 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停止)를 가리켰다.  
때늦은 의원(醫員)이 아모 말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의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낮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었디어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 ①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타향에서 ‘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하는 비극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이국의 지명을 사용하여 유랑민의 삶을 살았던 ‘아버지’의 이력을 암시하고 있다.
- ③ ‘풀벌레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회상의 방식으로 고향과 이국의 풍경을 대비하여 이루지 못한 ‘아버지’의 소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없는 것은?

가정용 VCR을 1970년대 초반에 선보였는데, 가장 성공적으로 판매된 제품은 소니사의 베타맥스였다. 이것은 폭 2분의 1인치의 자기 테이프에 영상과 음향을 기록하고 재현하는 형태였다. 소니사는 이 방식의 시제품을 다른 전자 회사들 앞에서 시연하면서 번거롭게 별도의 방식을 모색하지 말고 자신들의 방식을 기술 표준으로 공인해 달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 JVC사가 VHS를 내놓으면서 격렬한 표준 경쟁이 시작되었다.

베타맥스는 화질이 뛰어나고 소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최대 녹화 시간은 한 시간 정도였다. 이것은 베타맥스의 커다란 취약점이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는 장편 영화 한 편도 녹화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지고, 중간에 테이프를 갈아 끼워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VHS는 카세트의 크기가 더 크고 테이프를 감는 속도도 느렸기 때문에 두 시간 분량을 녹화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시장의 판도는 후발 주자인 VHS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한편 VCR은 비싼 가격으로 인해 판매보다는 대여 서비스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었다. VCR이 대중화되어 일반 가정에 보급된 이후에도 소비자들은 어느 기술 방식이 시장에서 퇴출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점점 더 구매보다 대여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JVC사는 대여 서비스에 치중함으로써 시장의 70%를 점유하게 되었다.

- ① 특정 기술이 기술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동향이 중요하다.
- ② 기술과 관련된 경제적인 판단이 기술의 표준화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 ③ 기술을 개발한 회사의 압박이 기술을 표준화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기도 한다.
- ④ 특정 기술이 표준화되기 전에는 소비자들도 특정 기술을 확실히 선택하지 않는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답지 않은 소리를 하였다.
- ② 쉬고 있으려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 ③ 내노라하는 학자들이 한곳에 모였다.
- ④ 웬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 01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향단이 문안이오! 대감님 문안이 어떠하옵시며 대부인(大夫人) 기후(氣候) 안녕하옵시며, 서방님께서도 먼 길에 평안히 행차하시니까?”

“오냐, 고생이 어떠하냐?”

“소녀 몸은 무탈하옵니다. 아씨 아씨 큰아씨, 마오 마오 그리 마오! 멀고 먼 천 리 길에 뉘를 보려고 오셨는데 이 팔새가 웬일이오! ㉠애기씨가 아시면 지레 야단이 날 것이니 너무 팔새 마옵소서!”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먹던 밥에 풋고추 절이김치 양념 넣고, 단간장에 냉수 가득 떠서 모반에 받쳐 드리면서,

“더운 진지 할 동안에 시장하신데 우선 요기하옵소서.”

어사또 반겨 하며,

“㉡밥아, 너 본 지 오래로구나!”

여러 가지를 한데다가 붓더니, 숟가락 딸 것 없이 손으로 뒤져서 한편으로 몰아치더니 파파람에 게 눈 감추듯 하는구나. 춘향 모하는 말이,

“㉢얼씨구, 밥 빌어먹기는 공성이 낫구나!”

이때, 향단이는 저의 애기씨 신세를 생각하여 크게 울지는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는 말이,

“㉣어찌할꺼냐, 어찌할꺼냐! 도덕 높은 우리 애기씨를 어찌하여 살리시려오!”

목 놓아 우는 모습을 어사또 보시더니 기가 막혀,

“여봐라 향단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너의 애기씨가 설마 살지 죽을소냐! 행실이 지극하면 사는 날이 있느니라.”

-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에서 -

- ① ㉠: ‘향단’은 ‘춘향’과의 상하 관계 때문에 ‘어사또’에게 예를 갖추려 하고 있다.
- ② ㉡: ‘어사또’는 ‘춘향’이 죽을 처지에 놓였음을 알지 못하고 눈치 없이 행동하고 있다.
- ③ ㉢: ‘춘향 모’는 ‘어사또’가 겪어 왔을 어려움을 짐작하며 상대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④ ㉣: ‘향단’은 ‘어사또’가 ‘춘향’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슬퍼하고 있다.

## 01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교환되는 상품은 구체적인 유용성을 띤 사용 가치의 대상이 아니라 인위적인 욕구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체계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대상이다. 따라서 상품화된 물건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 즉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는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자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계가 개인이 ㉡욕구를 가지도록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즉 소비 사회는 개인을 상품 생산 논리에 부합되는 존재로, 소비의 유혹에 끊임없이 지배당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보드리야르는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 논리의 핵심을 생산이 아니라 ㉢재생산과 소비로 보았다. 소비되지 않는 생산물은 자원의 낭비일 뿐이며, 재생산과 소비되는 것만이 생산물로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산은 재생산과 소비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의미와 기능을 인정받는다. 그래서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이 소비와 재생산을 보증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재생산과 소비가 생산과 축적을 보증한다고 본다. 그가 이렇게 재생산과 소비를 중심으로 자본주의를 재해석하는 데에는, 경제학의 생산 중심의 논리를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소비 중심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새롭게 이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① ㉠: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의미
- ② ㉡: 자율적인 표현과 대비되는 욕구
- ③ ㉢: 자본주의가 생산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한 방식
- ④ ㉣: 인간을 소비의 유혹으로 지배하는 사회

## 0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표현주의는 외부 세계에 대한 인상이 아닌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우리나라 오는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실제의 사물들을 묘사하는 자연주의처럼 세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표현주의자들은 예술의 생성 과정이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예술이란 내면적 현실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회화의 선이나 형태, 색채 등을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 이용했고, 형태의 왜곡을 통해 감정을 더욱 강렬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특히 그들은 인간이 겪는 고통과 가난, 폭력 등 비참한 현실들을 직시하고, 인간에 대한 연민을 강렬한 색채와 왜곡된 선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표현주의자들은 내면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조화나 미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무시했다.

- ① 표현주의는 외부 세계를 내면의 인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 ② 표현주의는 현실에 존재하는 감정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하려 하였다.
- ③ 표현주의는 외부 세계의 모방이 아니라 외부 세계 자체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 ④ 표현주의는 외부에서 내면으로 향하기 위해 미에 대한 전통적 개념을 배제하였다.

## 015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계적인 IT 미래학자 ㉠니콜라스 카가 던진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디지털 치매 증후군은 니콜라스 카의 경고의 내용을 잘 보여 준다. 디지털 치매 증후군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그 편리성에 빠지고 결국은 정보에 대한 일시적 기억 상실을 겪게 된다는 증후군이다. 스마트폰에 연락처를 자동으로 입력해 두고, 발신자 이름이 착신과 함께 뜨게 함으로써 애써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어졌다. 혹시라도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정말 난감한 처지에 몰리게 된다. 기억을 담당하는 우리 뇌가 손상을 입게 되는 치매와는 달리 일시적인 기억 장애라 가볍게 볼 수 있지만,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20대부터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 평소 감당해야 할 의사 결정에 따른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그냥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며, 우리 뇌는 그냥 빈둥빈둥 놀린다.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기를 꺼리게 만든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독창적인 사고로 도전해보는 관습적인 사고와 해결책에 의존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직접 아는 지식과 찾을 수 있는 지식은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 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은 심각한 질병이다.
- ②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새로운 관습을 만들 뿐이다.
- ③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우리를 더 의존적으로 만든다.
- ④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맺은 인간관계는 거짓이다.

## 016

밑줄 친 한자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내가 선택한 말이 기수와 완전히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달렸다.
- ② 출세를 위해 친구를 이용하는 파렴치한(破廉恥漢)이 되어서는 안 된다.
- ③ 오랜 심사숙고(深思熟考) 끝에 그를 우리 모임의 회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 ④ 지난 시험에 떨어진 후로 거안제미(擧案齊眉)하여 실력을 기르고 있다.

## 01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삼팔선. 그것은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도 철호의 늙은 어머니에게만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난 모르겠다. 암만해도 난 모르겠다. 삼팔선. 그래 거기에다 하늘에 꼭 닿도록 담을 쌓았던 말이나 어쨌단 말이나. 제 고장으로 제가 간다는데 그래 막을 놔미 도대체 누구란 말이나.”

죽어도 고향에 돌아가서 죽고 싶다는 철호의 어머니였다. 그러고는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게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며 한숨과 함께 무릎을 치며 꺼지듯이 폴썩 주저앉곤 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철호는,

“어머니, 그래도 남한은 이렇게 자유스럽지 않아요?”

하고, 남한이니까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살 수 있지, 만일 북쪽 고향으로 간다면 당장에 죽는 것이라고,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갖은 이야기를 다 예로 들어 가며 어머니에게 타일러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을 늙은 어머니에게 이해시키기란 삼팔선을 인식시키기보다도 몇백 갑절 더 힘든 일이었다. 아니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했다. 그래 끝내 철호는 어머니에게 자유라는 것을 설명하는 일을 단념하고 말았다. 그렇게 되고 보니 철호의 어머니에게는 아들 — 지리지 고생을 하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만은 죽어도 하지 않는 철호가 무슨 까닭인지는 몰라도 늙은 어미를 잡으려고 공연한 고집을 피우고 있는 천하에 고약한 놈으로만 여겨지는 것이었다.

- 이범선, 「오발탄」에서 -

- ① ‘철호의 어머니’는 남한에서의 삶을 힘겨워하며 북쪽 고향에 돌아가서 죽고 싶어 했다.
- ② ‘철호’는 ‘어머니’에게 분단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시키지 못했다.
- ③ ‘철호’는 ‘어머니’에게 북쪽 고향에서 죽을 뻔했던 일을 상기시키며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 주려 했다.
- ④ ‘철호의 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철호’가 고집을 부리는 탓에 남한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격은 한 사람의 일관되고 광범위하며 자연스러운 판단과 행동, 정서 반응의 총합이다. [㉠] 이 인격으로 인해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피해를 주고, 그로 인해 사회생활의 전반적 적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를 인격 장애라고 한다.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삶의 한 시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들은 자신의 증상을 ‘본질적 나’의 구성과 다르다고 인식하며 그 문제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 인격 장애의 경우 인격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신을 구성하는 본질의 일부이기에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아에 잘 어울린다고 여긴다. [㉢] 자신이 타인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불편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당연히 치료를 통해 변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서양에서는 불안증이나 우울증을 ‘신발 속의 자갈’로 비유한다. 걸으려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정작 신발 안의 돌 때문에 걸을 때마다 통증을 느낀다는 의미다. [㉣]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입안의 마늘’로 비유한다. 마늘을 좋아해서 양껏 먹었는데, 말할 때마다 마늘 냄새가 진동해서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 |   | ㉠   | ㉡   | ㉢  | ㉣      |
|---|-----|-----|----|--------|
| ① | 계다가 | 그리고 | 곧  | 다만     |
| ② | 대신에 | 하지만 | 결국 | 그뿐 아니라 |
| ③ | 그런데 | 그러나 | 즉  | 반면     |
| ④ | 더욱이 | 더구나 | 특히 | 만약     |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청렴하고 강직(強直)한 지도자로 세평이 나 있다.
- ② 새로 문을 연 백화점은 유럽 귀부인풍의 사치(奢侈)한 분위기로 치장하였다.
- ③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각자의 역할(役割)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④ 내년에 판매 방침(方針)을 바꾸려는 사장님의 생각은 확고하다.

다음 글을 읽고, &lt;보기&gt;의 명제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에서 P를 전건, Q를 후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를 대전제로 두고 소전제에서 대전제의 전건이나 후건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삼단 논법을 통해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가)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땅이 젖지 않았을 것이다.
- (나)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땅이 젖었다. 그러므로 비가 왔을 것이다.

그런데 (가)와 (나)는 전제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다. (가)는 대전제의 전건을 부정하여 후건을 부정하는 결론을 얻는 전건 부정의 오류이고, (나)는 대전제의 후건을 긍정하여 전건을 긍정하는 결론을 얻는 후건 긍정의 오류이다. (가)는 ‘P이면 Q이다. P가 아니다. 그러므로 Q가 아니다.’라는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나)는 ‘P이면 Q이다. Q이다. 그러므로 P이다.’라는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논리 형식을 볼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와 (나)는 내용적으로 따져 보아도 오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의 경우 비가 오지 않았더라도 눈이나 안개가 원인이 되어 땅이 젖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경우에도 땅이 젖었더라도 그 원인이 비가 아니라 눈이나 안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보기 -

- (A) 사람이 독버섯을 먹으면 죽는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독버섯을 먹었을 것이다.
- (B) 사람이 독버섯을 먹으면 죽는다. 어떤 사람이 독버섯을 먹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 ① (A)는 후건 긍정의 오류이고, (B)는 전건 부정의 오류이다.
- ② (A)와 (B)는 전제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다.
- ③ (A)는 ‘P이면 Q이다. Q가 아니다. 그러므로 P가 아니다.’라는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④ (B)는 독버섯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므로 내용적으로 오류임을 알 수 있다.

# 모의고사

## 02회

시작 시간	시	분	초
종료 시간	시	분	초
총 소요 시간		분	초

### 001

두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이 모두 보조 용언인 것은?

- ① 새로 담긴 김치를 먹어 보아라.  
[식구들이 모두 집에 돌아왔나 보다.]
- ② 그녀는 이 직장에서 20년간이나 일해 왔다.  
[삼촌이 할머니께 드릴 꽃을 한 아름 안고 왔다.]
- ③ 게임을 하느라 밥 먹는 시간도 잊어 먹었다.  
[한겨울이면 나는 동치미에 냉면을 말아 먹었다.]
- ④ 김 대리는 혼자서 묵묵하게 그 일을 끝내 버렸다.  
[무슨 이유인지 누나가 사진을 휴지통에 찢어 버렸다.]

### 002

다음 문장에서 ‘-었-/~았-/~였-’의 문법적 기능이 밑줄 친 예와 다른 것은?

선어말 어미 ‘-었-/~았-/~였-’의 주 쓰임은 과거 시제 표현이지만, 사건시가 발화시와 일치하는 현재의 일을 표시하는 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과가 잘 익었다.’라는 문장은 과거에 사과가 익었고, 그러한 상태가 현재에까지 지속됨을 나타낸다.

- ① 벌써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구나.  
② 지금과 달리 십 년 전 이곳은 논밭이었다.  
③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고생만 하였다.  
④ 주유소에 가보니 기름값이 너무 올랐다.

### 003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그녀는 입때 소식이 없어요.  
② 카레에 넣을 살코기를 볶았다.  
③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씨이다.  
④ 수코양이 한 마리가 집 주위를 돌아다녔다.

### 004

<보기>에 제시된 ㉠~㉣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 ㉠ 제13항 홀반침이나 쌍반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 제14항 겹반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엀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 ㉢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 [붙임] 겹반침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 ㉠ ㉠: 발에[바테]  
㉡ ㉡: 낮이[넉씨]  
㉢ ㉢: 꽃 위[꼬뒤]  
㉣ ㉣: 닭 앞에[달가페]

### 005

밑줄 친 대화 방식에 따라 <보기>에 응답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화 시 초점을 두는 부분에 따라 대화의 방식이 달라진다. 이러한 대화의 초점에는 정보성과 관계성이 있다. 정보성에 초점을 두고 대화하는 경우는 대화 과정 자체보다는 대화 내용에 중점을 두고 공감이나 유대감 형성보다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반면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대화하는 경우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말이 오가는 대화 과정 자체를 통해서 상대방과 함께 공감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 보기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밤새 시험공부를 하다가 아침이 되어 버렸지 뭐야.

- ㉠ 피곤할 텐데, 조금이라도 잠을 자는 게 어때?  
㉡ 미리 공부를 해 두었더라면 밤샘 필요가 없었잖니?  
㉢ 밤새 공부를 하느라 피곤하겠네. 시험공부는 많이 했어?  
㉣ 그렇게 벼락치기로 밤새 시험공부를 하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니?

## 006

㉠~㉣의 고쳐쓰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제품 소비에 있어 주체의 행위에 기초가 되는 것은 인간의 ㉠합리성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효용을 얻으려고 소비자는 여러 정보를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어디에서 구매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현대 소비 사회의 특성인 소비 욕구의 재생산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합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제품에 크게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비 행위에는 이 ㉢이성적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 자신의 내부에 있는 욕구가 제품으로 투영되어 그 제품의 소비 욕구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이 제품에 대한 즉각적 소비 행위를 시도한다. 경제적 조건이 허락할 경우에는 물론이고 조건이 쉽게 허락하지 않을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합리적 시각에서 보면 경제적 조건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제품을 소비하는 것, 기존의 제품이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모두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현대의 제품 소비에 있어서 합리성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 만족이다.

- ① ㉠을 ‘합리성’으로 고친다.      ② ㉡을 ‘비합리적인’으로 고친다.  
③ ㉢을 ‘감정적’으로 고친다.      ④ ㉣을 ‘가능하다’로 고친다.

## 00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을 하늘에 달 비치고 은하수 밝은데  
나그네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 각별히 정회가 생기네  
긴 밤 지루하게 앉아 죽을 듯이 시름겨운데  
문득 이웃 아낙네의 다듬이질 소리 들려오네  
바람에 실려 오는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며  
밤 깊어 별 기울도록 잠시도 몇지를 얹네  
고국을 떠난 뒤로는 들어 보지 못했는데  
지금 타향에서 듣는 소리 서로 비슷하네  
고운 방망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알 수 없고  
다듬이돌 평평한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불쌍해라, 몸 약해 향기로운 땀 많을 터이니  
알겠노라, 옥 같은 팔 벌써 매우 지쳤음을  
마땅히 나그네 홀옷에 보태고자 함인가  
다시 먼저 규방의 추위를 시름겨워 함인가

- 양태사, 「아청도의성(夜聽搗衣聲)」 -

- ① 다듬이질하는 ‘이웃 아낙네’의 모습에 대한 시적 화자의 추측과 짐작이 제시되어 있다.  
② ‘다듬이질 소리’가 고향에서 들던 소리와 비슷하다고 여기는 시적 화자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③ 다듬이질로 지쳤을 ‘이웃 아낙네’에 대한 시적 화자의 연민과 공감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④ ‘이웃 아낙네’와 시적 화자가 ‘다듬이질 소리’를 매개로 서로의 시름을 위로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

## 008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 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에 농사를 짓고 있는 □□□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지역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전시 판매하는 장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5년 전부터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나,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시 지역 신문에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이용한 경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4.7%였고, 앞으로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2%에 불과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찾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이곳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되는 물품을 지역 농산물과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료로 다양화하고, 축산물도 함께 판매할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된장, 반찬, 간식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료를 판매하더라도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는 여러 축산 농장이 있으니 시설을 갖추어 축산물을 함께 판매하면 지역 축산 농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시장님께서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① 자신이 건의한 활성화 방안이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②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을 밝히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 건의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④ 시장에게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며 건의하는 글을 끝맺고 있다.



㉠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춘장:**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잃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구,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을 와 달라구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파수꾼 다:** 도끼는 왜 들고 와요?

**춘장:** 망루를 부순다구 그런단다. ‘이리 떼는 없구, 흰 구름뿐.’ 이것이 구조처럼 외쳐지구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구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 히 ㉠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파수꾼 다:** 춘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춘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파수꾼 다:** 춘장님도 아시는군요?

**춘장:** 난 알고 있지.

- 이강백, 「파수꾼」에서 -

- ① 권력에 굴복하는 나약한 지식인
- ②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희생
- ③ 조장된 공포감에 의해 가려진 이익
- ④ ‘춘장’이 ‘파수꾼 다’를 협박하는 수단

㉡~㉤의 시적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윤동주, 「서시」 -

- ① ㉡: 화자가 지향하는 궁극적 삶의 가치를 의미한다.
- ② ㉢: 화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자극을 의미한다.
- ③ ㉣: 화자가 숙명으로 여기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의미한다.
- ④ ㉤: 화자가 추구하는 고요한 내면의 상태를 의미한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칸트는 계몽을 ‘미성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종교나 외부적 권위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이성을 중심으로 주체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에 오늘날 모더니즘이라 부르는 사유 경향의 핵심이 담겨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조리한 권위와 미신을 타파하고 진정한 인류의 발전과 자유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현대의 철학자들은 이 견해에 전체주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즉 이성적 사유자로서의 인류 전체가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치단결하여 전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후 헤겔이 보다 강력한 전체주의적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근대 이성주의의 핵심이 사실상 전체주의에 있음을 천명하였다.

게다가 아도르노를 비롯한 여러 현대의 철학자들이 비판하였듯이 근대 이성주의가 우리에게 보여 준 것은 유토피아적 전망이 아니라 아우슈비츠로 대변되는 비극적 디스토피아였다. 아도르노는 이를 형이상학의 몰락이라고 하였다. 이런 아도르노적 반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리오타르의 사상이다. 리오타르는 인류가 새로운 실천과 가치를 모색해야만, 다시 말해 삶과 사유의 방식을 변화시켜야만 이러한 몰락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① 칸트의 계몽주의는 부조리한 권위의 타파라는 목적을 지녔다.
- ② 아도르노가 비판한 형이상학이란 곧 칸트와 헤겔의 철학이었다.
- ③ 헤겔은 인류가 이성의 힘을 발휘하여 공통의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리오타르는 인류가 몰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유를 배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 012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계집 다람쥐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꾸짖어 가로되,  
“낭군의 말이 그르도다. 천하 만물이 세상에 나매 신의를 으뜸으로 삼나니, 서대주는 본래 우리와 향렬이 남과 다름이 없고, 하물며 내외를 상통함도 없으되 다만 한 번의 만남을 생각하고 다소간 곡식을 꽤히 허락하여 주었으니 … (중략) … 다시 생각하고 깊이 헤아려 은혜 갚기를 힘쓰고 거친 말을 하는 마음을 버릴지라. 서대주는 본디 관후장자(寬厚長者)라 반드시 후일에 낭군을 위하여 사례할 날이 있으리니 비록 천한 여자의 말이나 깊이 살피서 후회하여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옵소서.”

다람쥐 듣기를 마치고 크게 노하여 가로되,

“이 같은 천한 계집이 나를 가르치고자 하느냐. 계집이 마땅히 장부가 욕을 입음을 분히 여김이 옳거늘 오히려 서대주를 관후장자라 일컫고 나더러 포악하다 꾸짖으니 이 내 형세 곤궁함을 보고 배반할 마음을 두어 서대주를 언고자 함이라. 예로부터 부창부수(夫唱婦隨)는 남녀의 정이요, 여필종부(女必從夫)는 부부의 의이늘 부귀를 따라 탄 마음을 둘진대, 갈려면 빨리 가고 머뭇거리지 말라.”

- 작자 미상, 「서동지전(鼠同知傳)」에서 -

- ① ‘서대주’는 ‘다람쥐’에게 흔쾌히 곡식을 내어 준 적이 있다.
- ② ‘다람쥐’는 ‘서대주’와 평소 친분을 쌓아 온 관계는 아니었다.
- ③ ‘다람쥐’는 ‘서대주’에 대해 ‘계집 다람쥐’와 다른 평가를 내렸다.
- ④ ‘계집 다람쥐’는 대등한 부부의 관계를 강조하며 ‘다람쥐’를 지적했다.

## 013

다음 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플랫폼은 단순히 둘 이상의 집단을 연결해 주는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흥미를 끌 만한 요인인 장소, 시스템, 결제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면 입점 매장과 고객을 연결하는 백화점이 각 매장이 개별적으로 처리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화장실 설치, 주차장 운영, 고객 관리, 마케팅 등을 담당함으로써 매장과 고객들의 욕구를 채워 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각 그룹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플랫폼이 전부 맡아서 하는 편이 훨씬 저렴하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제공하는 브랜드가 사용자에게 일종의 신뢰를 제공해야 한다. 플랫폼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질을 보장해 주어야 소비자들이 플랫폼에 계속 머무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자전거라면 역시 ○○○’라는 식으로 브랜드를 창조하면 각 점포나 개인이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 플랫폼에 모이게 된다. 이렇듯 플랫폼의 브랜드화는 플랫폼을 이용하기 전에 고객들로 하여금 상품을 사전에 검색해야 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 ①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품질도 중요하겠군.
- ② 백화점에 비싼 임대료를 주며 입점하려는 업체가 왜 그렇게 많은지 이제는 알겠군.
- ③ 플랫폼이 형성되면 제품을 구매할 때 수고를 덜게 되니 소비자에게도 득이 되겠군.
- ④ 플랫폼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제품을 사전에 검색하는 이용자의 비율이 높아야 되겠군.

## 014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친구들보다 걸음이 뒤쳐졌다.
- ② 해열제를 먹은 효과가 급세 나타났다.
- ③ 살다 보면 별 희한한 일이 생기기도 해요.
- ④ 있는 돈을 통틀어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샀다.

## 015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그리고 이 모든 바탕에는 창과 아니리를 담당하는 광대로서의 역할이 깔려 있다. 특히 광대가 “오늘 삼복더위에도 많이 모였구나.”,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 이별한다 하고 오리정 삼로 네거리 길에 퍼버리고 앉어 올 리가 있겠느냐?”와 같이 말하는 부분은 광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예컨대 광대가 ‘춘향가’를 공연할 때 “숙종 대왕 즉위 초에 사또 자제 도련님 한 분이 계시되, 연광은 십륙 세요 이목이 청수(淸秀)하고, 거지 현량(賢良)하니 진세간 기남자라.”하고 사설을 읊는다면 이는 서술자의 역할이겠지만, “이에 방자야.”하고 방자를 부르는 부분은 특정 인물로서의 역할이다.

(다) 판소리 광대는 피상적으로는 광대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서사 텍스트 내에서는 그 상황에 따라 인물, 서술자, 광대 자신으로 역할을 바꾼다.

(라) 이렇게 여러 등장인물과 서술자, 광대 자신을 변별하기 위해 광대는 표정, 몸짓뿐만 아니라, 장단, 창조(唱調), 성음 등을 상황에 어울리게 구사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 ① (가) - (다) - (나) - (라)
- ② (가) - (라) - (다) - (나)
- ③ (다) - (가) - (라) - (나)
- ④ (다) - (나) - (가) - (라)

## 016

다음 글에 제시된 유목민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스트레일리아나 칼라하리 사막에 살고 있는 원시 유목 민족은 절대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불행하지 않다. 이 원시인들에게는 개인 소유물이 전혀 없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는 가졌던 것을 버린다. 다른 곳으로 쉽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생산을 위한 활동, 즉 노동이 없다. 말하자면 그들은 한가롭게 수렵하고 채집하며, 손에 넣은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진다. 그들은 아낌없이 낭비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단번에 소비하며, 어떠한 경제적 계산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간의 에너지나 자연 자원, 혹은 경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들을 결코 완전히 활용하지는 않는다. 원시인들은 잠을 많이 잔다. 자연 자원의 풍부함에 대한 신뢰, 바로 이것이 원시인의 경제 체계의 특징이다. 반면에 현대인의 체계가 갖는 특징은 인간이 쓸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에 대한 절망감, 그리고 시장 경제와 보편적 경쟁의 결과로 발생하는 근본적이고 파국적인 불안감이다. 이 특징은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더 뚜렷해진다.

- ① 눈앞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 ② 절대적 빈곤은 오직 내면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 ③ 잉여물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라.
- ④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 017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의 시대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조건은 사회 윤리 교육을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으면서, 또한 사회 윤리 교육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 ① 창해일속(滄海一粟)
- ② 이율배반(二律背反)
- ③ 주객일체(主客一體)
- ④ 흥진비래(興盡悲來)

## 018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은 가솔린 자동차가 개인용 차량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다. ㉠ 가솔린 자동차가 자동차 개발 초기부터 대중적인 자동차였던 것은 아니다. 20세기 초 미국 자동차의 40%는 증기 자동차였고, 38%는 전기 자동차였으며, 가솔린 자동차는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20세기 초에 증기 자동차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당시에 전기나 가솔린보다 증기력 관련 기술이 더 발달하였고, 그만큼 증기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동력 기술로 인식되었던 점과 관련이 있다.

㉡ 공장과 기차에 사용되고 있던 증기력을 자동차에 이용하는데에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다. 증기력은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실어야 할 물의 무게가 상당하였다. ㉢ 시동을 걸기 위해 충분한 증기압이 형성되고 보일러가 예열될 때까지 가열 시간이 긴 것도 문제였다. 이러한 단점들은 점차 몇몇 기술의 발전으로 개선되었다. 수관 보일러를 사용하면서 관에 유입된 물이 넓은 면적으로 확산, 가열되어 증기가 더 빨리 형성될 수 있었으며, 사용한 물을 재사용하여 다시 보일러에 주입할 수 있게 되어 물의 무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장거리 운행이 가능해졌다. ㉣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자동차의 무게가 줄고 가열 면적이 넓어져 동력의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증기 기관의 힘을 임의로 변화시키는 기술이 개발되어 다른 자동차에 비해 자연스럽게 속도 조절이 가능하게 되었다.

- |   | ㉠    | ㉡   | ㉢    | ㉣     |
|---|------|-----|------|-------|
| ① | 그러나  | 하지만 | 그리고  | 이와 같이 |
| ② | 그리하여 | 차라리 | 그래서  | 이를테면  |
| ③ | 그런데  | 더구나 | 그렇다면 | 이와 달리 |
| ④ | 그러므로 | 반면에 | 그러므로 | 이로부터  |

## 019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의견(義見)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 ②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답사(踏事)를 통해 현지의 실태를 조사했다.
- ③ 뛰어난 아이디어와 예리한 통찰력(洞察力)으로 리더가 되었다.
- ④ 우리 회사는 작년에 공사화한 이래로 끊임없이 정부의 간섭(間涉)을 받고 있다.

## 020

다음 중 이 글에 나타난 칸트의 견해로 보기 어려운 것은?

칸트는 동정심이 수동적인 정념인 까닭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고유한 원칙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동정심을 느끼느냐 그리고 얼마나 강한 동정심을 느끼느냐 하는 것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즉 동정심의 발발, 강도는 우연적인 조건들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동정심으로 도덕적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도덕적 행위의 일관된 기준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칸트는 도덕적 행위란 일관된 기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칸트에 의하면 동정심이 강렬해지면 걱정이 되는데 일단 동정심이 걱정으로 변해 버리면 그것은 이성의 제어를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성적 규범을 벗어난 감정은 반드시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자기 눈앞에 있는 모든 여자에게 강렬한 동정심으로 사랑을 느끼고, 그때마다 이러한 동정심이 통제 불가능한 걱정으로 나타난다면, 그의 사랑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결코 도덕적인 것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칸트는 동정심이 부도덕한 정념은 아니지만 동정심이 갖는 수동성과 맹목성으로 인해 그것이 결코 그 자체로서는 도덕적인 행위의 근본 원리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① 도덕적 행위는 일관된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이성과 원칙에 따르지 못한 행위는 부도덕한 것이다.
- ③ 걱정적 동정심에서 우러나온 행동 중 도덕적인 것도 있다.
- ④ 동정심은 수동성과 맹목성을 지닌 것으로 우연하게 나타난다.

# 모의고사

## 03회

시작 시간	시	분	초
종료 시간	시	분	초
총 소요 시간		분	초

### 001

밑줄 친 ‘올리기’와 품사가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명수는 종이 올리기 전에 문제를 다 풀었다.

- ㉠ 장군은 죽음을 무릅쓰고 전장에 나갔다.
- ㉡ 어머니께서 그리신 그림은 정말 아름답다.
- ㉢ 동생이 일기에 ‘오늘 3km를 걸음’이라고 썼다.
- ㉣ 그녀는 수줍게 웃음으로써 마음을 대신 전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002

밑줄 친 부분이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제가 발표를 할 차례[차레]입니다.
- ② 최근[체근] 경제 동향을 살펴보았다.
- ③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다[게시다].
- ④ 허리를 다쳐[다쳐] 짐을 들기가 어렵다.

### 003

밑줄 친 부분의 활용형이 옳은 것은?

- ① 그녀는 감정 표현에 서툴었다.
- ② 아이가 소란을 퍼서 죄송합니다.
- ③ 폭우가 내려 땅에 웅덩이가 패었다.
- ④ 그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이곤 했다.

### 004

다음 회의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팀장:**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소비가 시장의 판도를 좌우하는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 할인점도 판매 상품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원 1:** 1인 가구는 생활 특성상 소형과 효율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1인 가구의 생활 특성에 맞추어 판매 상품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과 주방 기구는 크기가 크니, 소형 가전제품과 소형 주방 기구를 새로 들여오면 어떨까요?

**팀원 2:** 판매 상품을 조정한다면 가전제품이나 주방 기구보다는 우리 할인점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료품을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수박 같은 과일은 크기가 커서 1인 가구가 한꺼번에 다 먹기 힘들어 구매를 주저하게 됩니다. 최근 일반 수박의 4분의 1 크기인 수박이 출시되었는데, 이런 상품을 새로 구비해 두면 어떨까요?

**팀원 3:** 두 분 말씀대로 소형, 소용량 상품을 구비하는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규 상품을 도입하기보다는 우선 기존 상품을 소단위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즉석밥이나 라면을 묶음 상품이 아니라 낱개로 판매하고, 사과 같은 과일도 6~8개씩 포장된 것을 2~3개로 나누어 포장한 다음에 판매하는 거죠.

**팀장:** 좋습니다. 많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1인 가구의 생활 특성에 맞춰 매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을 소단위로 포장하는 걸로 의견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만, 즉석밥이나 라면 같이 유통 기한이 긴 것들은 굳이 소단위로 판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채소와 과일 같은 신선 식품들 위주로 소단위 판매를 하도록 하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① ‘팀원 1’은 주어진 토의의 논제를 고려하여 제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팀원 2’는 ‘팀원 1’의 제안에 담긴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③ ‘팀원 3’은 ‘팀원 1’과 ‘팀원 2’가 제안한 취지에 동의하면서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팀장’은 팀원들의 제안을 검토하면서 적절성을 분석하고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 005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달포: 보름이 조금 넘는 기간.
- ② 해거름: 해가 서쪽으로 넘어갈 때.
- ③ 땅거미: 해가 진 뒤 어스레한 상태.
- ④ 그쑤저께: 오늘로부터 사흘 전의 날.

## 006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순풍(淳風)이 죽다하니 진실(眞實)로 거즈마리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올흔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 영재(許多 英才)를 소겨 말숨흘가

<제3곡>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自然)이 듯디 도희  
백설(白雪)이 재산(在山)하니 자연(自然)이 보디도해  
이 등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넋디 묻혀

<제4곡>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古人) 못 뵈  
고인(古人)을 못 뵈도 ㉢녀던 길 알퐁 잇너  
녀던 길 알퐁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제9곡>

청산(靑山)은 엇데하야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엇데하야 주야(晝夜)에 굿디 아니느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호리라

<제11곡>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 ① ㉠: 화자가 긍정하는 이상적 가치이다.
- ② ㉡: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가리킨다.
- ③ ㉢: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현재의 상황을 상징한다.
- ④ ㉣: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자연의 속성을 의미한다.

## 007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글을 완성한 것은?

보기

- 구호 봉사 활동 참여를 유도할 것.
- 대조의 방식을 활용할 것.
- 비유의 표현법을 활용할 것.

- ① 구호 활동, 작은 정성으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참여해 보세요.
- ② 용기 내어 시작한 당신의 구호 활동. 메마른 세상을 촉촉하게 적시는 단비가 됩니다.
- ③ 당신의 구호 활동은 세상을 밝히는 촛불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촛불을 보태어 주세요.
- ④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 때에 외국의 구호 활동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움을 줄 때입니다.

## 00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간다. 하인, 서서히 그 무거운 구두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질을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남자: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뭘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넥타이를 빌렸었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을 들어 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 뒀었소? 마구 험하게 했었소? 어딜 망가뜨렸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간 되돌려 드렸지요. 덤,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덤! 덤!

남자, 하인의 구두발에 걸어차인다.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여자: 그만해요!

남자: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여자: 그래요! 당신 아니구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 이강백, 「결혼」에서 -

- ① ‘남자’는 ‘여자’를 ‘덤’이라고 지칭하여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② ‘남자’는 관객에게 말을 건네어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 ③ ‘남자’는 관객을 증인으로 내세워 ‘여자’에 대한 사랑을 맹세하고 있다.
- ④ ‘남자’는 의문형 방백을 활용하여 관객들에게 소유에 대한 고찰을 유도하고 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악과 감정의 관계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플라톤에 따르면 가장 좋은 선율은 영혼이나 육체의 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래와 음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플라톤은 인간이 참된 음악을 들음으로써 높은 도덕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보기도 했지만, 또한 반대로 좋지 않은 음악이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주목하였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폭넓은 모방 개념을 예술과 연결하면서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모방한다고 보았는데,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모방한 음악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예술이 주는 감정적인 정화 작용, 즉 ‘카타르시스’를 주장했다. 카타르시스란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감상자가 받는 충격과 감동이 이성을 압도하는 상태가 되면서 감상자가 마음 속에 격렬하고 이질적인 감정을 느끼며 내면의 무질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카타르시스를 통해 인간에게 도덕적 경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 ① 플라톤은 음악이 인간의 도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 ② 플라톤은 참된 음악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이 인간의 감정과 상관있다고 보았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의 감각적 쾌락이 카타르시스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의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저는 과일을 별로 싫어해요.
- ㉡ 부산행 기차가 들어오고 있다.
- ㉢ 이번 학술 대회에 발표자가 다 오지 않았다.
- ㉣ 인천은 서울에서 28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 ① ㉠: ‘별로’는 부정 표현과 함께 쓰이므로 ‘싫어해요’는 ‘좋아하지 않아요’로 고쳐 쓴다.
- ② ㉡: 완료적 의미는 진행상인 ‘-고 있다’로 나타낼 수 없으므로 ‘들어오고 있다’는 ‘도착하고 있다’로 고쳐 쓴다.
- ③ ㉢: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는 ‘다들’으로 고쳐 쓴다.
- ④ ㉣: ‘위치하고 있다’는 번역 투이므로 ‘있다’로 고쳐 쓴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온달(溫達)은 고구려 평강왕(平岡王) 때 사람이다. 용모는 구부정하여 우스꽝스러웠지만, 속마음은 환하게 빛났다. 집이 매우 가난하매 늘 음식을 구걸해다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찢어진 적삼과 헤진 신발로 시정 사이를 왕래하니, 당시 사람들이 가리 ‘바보 온달’이라고 하였다.

평강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하니, 왕이 희롱해 말하기를 “네가 늘 울어 대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자라면 반드시 사대부의 아내가 되지 못하고 마땅히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가리라.”라고 하였다. 왕이 매번 그렇게 말하더니, 딸의 나이 16세가 되자 상부(上部)의 고 씨에게로 시집보내고자 하였다. 이에 공주가 왕에게 말하였다.

“대왕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바보 온달의 아내가 될 것이다.’라고 하시더니, 이제 무슨 까닭으로 전의 말씀을 바꾸십니까? 필부도 오히려 식언(食言)하지 않으려 하거늘 하물며 지극히 존귀한 왕께서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임금에게는 농담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대왕의 명령은 잘못이므로 저는 감히 받들어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말하였다.

“네가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니 진정 내 딸이 될 수 없도다. 어찌 함께 살겠느냐? 마땅히 네가 갈데로 가거라.”

- 작자 미상, 「온달 설화」에서 -

- ① ‘평강왕’은 상부 고 씨와의 약속을 중시하고 있고, ‘공주’는 온달과의 인연을 중시하고 있다.
- ② ‘평강왕’은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를 강조하고 있고, ‘공주’는 부부 사이의 믿음을 중시하고 있다.
- ③ ‘평강왕’은 온달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고, ‘공주’는 온달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강조하고 있다.
- ④ ‘평강왕’은 자식이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탓하고 있고, ‘공주’는 왕이 스스로 한 말을 어기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 012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숲에 가 보니 나무들은  
제가꿈 서 있더군  
제가꿈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어  
광화문 지하도를 지나며  
술한 사람들이 만나지만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이 메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며  
낮선 그대와 만날 때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

-정희성, 「숲」-

- ①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의인화된 자연물로부터 현대 사회의 소외감을 위로받고 있다.
- ③ 의문형 표현을 통해 공동체적 삶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자연과의 대비를 통해 인간 사회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 013

다음 강연 내용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률상으로는 백 살 먹은 사람과 사십 살 먹은 사람 사이에 어떠한 구별도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져야 할 형법상의 책임은 젊은이들과 동일합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층을 겨냥한 것들은 있지만 노년기 연령층을 위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경제적인 지위를 결정할 때 보면, 사람들은 노인들을 이질적인 종류에 속하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들도 다른 인간들과 똑같이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인간들과 똑같은 소비 심리를 지닌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얼마 안 되는 보잘것없는 사회 보장을 마련해 주고는 그들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 ① 연령별로 적절한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겠군.
- ②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령에 따른 처벌 수위를 조절해야겠군.
- ③ 소외당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해야겠군.
- ④ 노년층의 경제적 지위가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고려해야겠군.

## 014

‘사이버 핸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사물을 손으로 잡으려면 물체에 따라 힘을 미묘하게 조절해야 한다. 사람들은 힘을 너무 많이 주면 달걀이 깨지고 약하게 쥐면 떨어지기 쉽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달걀을 잡을 때는 단단한 막대기를 잡을 때와 쥐는 정도에 차이를 둔다. 로봇에는 인간의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이버 핸드’가 장착되어 있는데, 사이버 핸드가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사이버 핸드가 달걀 하나를 집기 위해서는 로봇의 컴퓨터가 센서를 통해 얻은 달걀의 크기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복잡하고 방대한 계산을 해야 한다.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감안하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컴퓨터의 모든 연산은 ‘예’나 ‘아니요’의 이진 부호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걀을 집는 데 필요한 힘을 섬세하게 조절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인간은 ‘예’나 ‘아니요’와 같은 단순 논리로만 살아가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매우’, ‘조금’, ‘약간’, ‘보통’ 등의 애매한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 ① 컴퓨터의 복잡한 계산 과정 때문에 사이버 핸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 ② 로봇도 애매한 표현을 인식할 수 있어야 사이버 핸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 ③ 잡으려고 하는 사물의 크기나 형태를 무시해야 사이버 핸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 ④ 사이버 핸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연산이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01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순자는 맹자와 달리 인성의 악성(惡性)을 언급하면서 예의와 형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인덕(仁德)을 근본으로 한 ‘왕도’ 이외에 무력을 배경으로 한 ‘패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난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직 ‘왕도’를 통해서만 난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 맹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순자가 염원했던 것은 조속한 천하 통일이었다. 열국 간의 전쟁이 계속되는 한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제할 길이 없다는 게 그의 신념이었다. 순자가 맹자와 달리 패도를 통한 천하 통일을 적극 인용한 근본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공자의 이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과 이상의 접합을 시도한 것이다.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바로 그의 예치 사상이다. 순자의 ‘예’는 외부의 규범에 의거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제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점을 예법에서 찾은 결과 인간의 본성은 매우 이기적인 기질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 ① 순자는 현실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패도’의 필요성을 용인하였다.
- ② 맹자는 ‘왕도’ 이외에는 난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보았다.
- ③ 순자는 공자의 학문을 계승하여 예를 중시한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 ④ 순자는 예법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016

다음 중 글쓴이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국인들은 왜 한류에 빠지게 되었는가? 한류는 중국에, 중국인들에게 무엇인가? 중국에서 한류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중국 언론과 학자들의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에 대한 욕구가 일어났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인들이 서구 문화와 아시아 문화를 융합·개조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국인들이 한류에 빠진 것은 한류의 수용이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는 대체 효과가 있으면서도 서구 문화의 직수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① 한류는 중국 문화를 서구 문화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한류는 중국 문화와 서구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한류는 중국인들이 서구 문화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터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한류는 중국인들에게 서구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 017

밑줄 친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화 및 모든 예술품을 볼 때 우리 민족은 슬픔을 달래고 한을 삭이고 그래도 모자라면 풀이하면서 살고자 했던 슬기로운 민족이었다. 물질의 빈곤 속에서도 만족함을 알고 여유를 찾으려는 민족이었다. 만일 그들이 못 먹고, 못 살고, 못 배우고, 벼슬살이를 못 한 것이 그토록 한이 맺혔더라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고운 그림을 그려 달라고 해도 마음에 없는 웃음과 익살을 민화 속에 심을 수 없었을 것이다.

- ① 無偏無黨
- ② 兩雄相爭
- ③ 安分知足
- ④ 天高馬肥

## 018

다음 밑줄 친 한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녀의 태도가 모호(模糊)해서 속내를 도통 알 수가 없었다.
- ② 장마철에 대비한 상하수도의 정비가 시급(時給)하다.
- ③ 준수는 차세대 경영자로서의 자질(資質)을 인정받았다.
- ④ 부장님은 뇌물(賂物) 수수의 혐의로 3개월간 감봉을 받게 되었다.

## 019

㉠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만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가만 있으면 무사했을 텐데 괜히 잘 해보려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경계하는 의미로 쓰인다. 이 속담이 시사하는 의미를 ‘손실 회피’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손실 회피는 얻은 것의 가치보다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크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1만 원을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크다는 것이다.

㉠‘보유 효과’는 ‘손실 회피’의 대표적인 심리 현상이다. 보유 효과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 지위, 권력 등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을 때보다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처한 상황을 포기하는 것을 손실로 여기는 심리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5달러에 구매한 골동품의 가격이 올라 50달러가 넘는데도 팔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5달러 골동품을 50달러에 팔면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골동품을 파는 것을 손실로 생각하는 것이다.

- ① 사람들은 상품을 구매할 때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보다 즉각적인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② 사람들은 상품을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받을 수 있으나 상품을 반환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 ③ 사람들은 하나의 제품을 샀을 때 하나를 더 주는 것보다 하나의 제품을 샀을 때 50%를 할인해 주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④ 사람들은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광고보다 전기 요금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상품의 구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020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무역은 국가 대 국가 간 물품을 매매하는 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무역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지만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국가의 경우,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무역 제한 조치의 방법으로 크게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이 있다. 관세 장벽은 고율의 관세를 수입품에 적용해 해당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조치이다. 국내 특정 상품이 경쟁력이 없는 경우에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적용된다. 반면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 조치로, 수입량을 억제하거나 수출국의 수출업자나 수입국의 수입업자에게 위협이나 비용을 증가시켜 수입량을 줄이는 방안이다.

관세 장벽에서 관세율의 결정 방법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는데,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를 종가세라 한다. 이에 반해 종량세는 수입품의 종량, 용적 또는 개수 등 재화의 수량을 기준으로 세율을 화폐액으로 명시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이렇게 해당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보호를 목적으로 한 목적 관세와 정부의 세입 증대를 위한 재정 관세 등이 있다. 가령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의 자국 내 시장가격과 수출품 가격 간 차액만큼 관세를 매기어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목적 관세이다.

[ 보기 ]

- ㄱ. 수입되는 영화용 필름에 1m당 5원으로 부과된 세금은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진 관세이다.
- ㄴ. 잔류 농약 허용치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은 전형적인 관세 장벽에 속한다.
- ㄷ.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 |        |        |
|--------|--------|
| ① ㄱ    | ② ㄷ    |
| ③ ㄱ, ㄷ | ④ ㄴ, ㄷ |



2023

수능형 version.1  
공무원  
모의고사

# 모의고사 01회

## 01회

001 ①	002 ③	003 ①	004 ①	005 ③
006 ③	007 ④	008 ①	009 ④	010 ③
011 ③	012 ④	013 ①	014 ②	015 ③
016 ④	017 ③	018 ③	019 ①	020 ③

### 001

정답 | ①

**해설** | ㉠: 안긴문장 ‘별이 빛나는’이라는 관형절에 ‘밤하늘에’라는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 ② ㉡: 안긴문장 ‘놀이공원에 가기’라는 명사절이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 ‘마음씨가 참 착하다’라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다. 따라서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홀문장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 안은문장의 주어는 ‘우리는’이고, 안긴문장 ‘그가 성실함’의 주어는 ‘그가’이다. 따라서 안은문장의 주어와 안긴문장의 주어가 같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02

정답 | ③

**해설** | 답임[다님](×) → [다밟](○): ‘답임’은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이므로, 받침 ‘ㅁ’을 연음하여 [다밟]으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피하기 |

- ① 인기척[인기척/인기척](○): ‘인기척’은 이중 발음이 가능해진 단어로 표준 발음은 [인기척]이었으나, 2017년 국립국어원 개정에서 [인기척]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였다.
- ② 유리잔[유리잔](○): ‘유리잔’은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단어이므로 [유리잔]으로 발음한다. 사잇소리는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수의적인 현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 ④ 속임수[속임수](○): ‘속임수’는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뒤 단어의 첫소리 ‘ㅅ’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 003

정답 | ①

**해설** | 인삿말(×) → 인사말(○): ‘인사말[인사말]’은 뒷말의 첫소리가 된 소리로 나타나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아야 한다.

오답피하기 |

- ② 횃수(○): 두 음절로 된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뒷간(退間), 횃수(回數)’는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 ③ 땃나물(○): ‘땃나물[땃나물]’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 ④ 훗날(○): ‘훗날(後-)’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 004

정답 | ①

**해설** | ‘곰살궂다’는 ‘꼼꼼하고 자세하다.’ 또는 ‘태도나 성질이 부드럽고 친절하다.’를 뜻한다.

오답피하기 |

- ②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를 뜻하는 말은 ‘시망스럽다’이다.
- ③ ‘말이나 행동이 곱고 우아하다.’를 뜻하는 말은 ‘음전하다’이다.
- ④ ‘행동이나 말, 생각이 쓸데없고 싱겁다.’를 뜻하는 말은 ‘각쩍다’이다.

### 005

정답 | ③

**해설** | ㉢: ㉢은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문화에 대한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은 ‘국내 문화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한 사회 제도 마련’으로 수정해야 한다.

오답피하기 |

- ① ㉠: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비자 발급의 어려움’은 상위 항목인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원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② ㉡: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오해’는 하위 항목들을 포괄할 수 있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및 실태’로 수정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④ ㉣: ‘끝’은 전체 내용을 고려하여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인격과 권리 강조’를 제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006

정답 | ③

**해설** | ‘김 박사’는 국내 미세 먼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

- ① ‘사회자’는 ‘국내 미세 먼지 문제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 박사님, 최 박사님 순으로 말씀해 주시죠.’라며, 질문의 형식으로 토의를 진행하며 전문가의 발언 순서를 지정하였다.
- ② ‘최 박사’는 ‘우리 정부와 미국 항공 우주국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화학 반응을 통해 증가하는 2차 미세 먼지의 경우 국내 오염원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배출도 중국에 못지않다는 말입니다.’라며, 공식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④ ‘청중’은 ‘국내 오염원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라며, 전문가의 발언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을 하였다.

## 007

정답 | ④

**해설 | ㉔:** (라)는 참신한 비유를 활용하여 이별한 자신의 처지를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가 미상의 사설시조이다. 시적 화자는 초·중장에서 절박한 처지에 처해 있는 ‘가토리 안(까투리 마음)’, ‘도사공의 안(뱃사공의 우두머리의 마음)’을 제시하고, 이들과 ‘님 여흰 안(임과 이별한 내 마음)’을 비교할 수 없다고 표현하며 자신의 처지가 더 참담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㉔ ‘도사공의 안’은 화자가 동일시하는 처지라고 볼 수 없다.

오답파하기 |

- ① ㉑: (가)는 월산 대군의 시조로, 가을 달밤의 풍류와 정취와 무욕의 삶의 태도를 표현한 것이다. 시적 화자는 ‘낙시’를 드리워도 ‘고기’가 묻지 않는 상황에 개의치 않고, ‘빈 배(빈 배)’에 ‘무심(無心)흔 들빔(무심한 달빔)’만 싣고 돌아온다. 이러한 ㉑ ‘빈 배’는 세속적 욕심을 초탈한 화자의 무욕의 태도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㉒: (나)는 임금에 대한 변함 없는 충정을 표현한 정철의 시조이다. 시적 화자는 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베어서 ‘별 들(별 달)’을 만들어 임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㉒ ‘별 들’은 임을 향한 화자의 변함 없는 사랑을 형상화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㉓: (다)는 박인로의 시조로, 흥시를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을 회교고사(懷橋故事)와 비교한 노래이다. 회교고사(懷橋故事)란 중국 오(吳)나라의 육적이라는 자가 여섯 살 때 원술이라는 사람을 찾아갔다가, 어머니께 드리려고 굴 세 개를 품속에 넣어 갔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시적 화자는 ‘조홍(早紅)감(일찍 익은 감)’을 가져가더라도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반가워할 이가 없다고 말하며 슬퍼하고 있다. 따라서 ㉓ ‘조홍(早紅)감’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여 화자의 슬픔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 008

정답 | ①

**해설 |** 필자는 선비는 가난하더라도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뽕나무를 심는 일은 명성을 잃지 않으면서 이익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뽕나무 심는 일은 이익은 남겨도 선비로서의 명성에는 누가 되지 않는다고 여긴 필자의 생각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필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비는 가난하더라도 명성, 즉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 009

정답 | ④

**해설 |** 2연에서 화자는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가 ‘아무을 만(灣)’의 파선도 /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지난 삶을 회상하고 있다. 그러나 고향의 모습을 회상한다거나, 고향과 이국의 풍경을 대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파하기 |

- ① 1연에서 ‘우리 집도 아니고 / 일가 집도 아닌 집’이라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타향에서 ‘아버지’께서 ‘최후의 밤’, 즉 임종을 맞이하는 비극을 강조하고 있다.
- ② 2연에서 ‘아무을 만(灣)’, ‘니코리스크’는 오후츠크해 근처의 러시아 지명이다. 이러한 지명을 활용한 것은 일제 강점기하에 일제의 수탈을

피해 유량을 하며 살아야 했던 우리 민족의 삶을 반영한 것이다. 시적 화자의 ‘아버지’ 또한 유랑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 ③ 1, 4연에서 활용한 ‘폴벌레 소리’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시적 화자의 슬픔을 투영한 것이다. 이는 화자의 슬픔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슬픔을 절제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010

정답 | ③

**해설 |** 소니사가 베타맥스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무언의 압박을 가했지만 이 압박 때문에 오히려 JVC사의 VHS 기술이 표준화되었다는 내용은 제 시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을 개발한 회사의 압박이 기술을 표준화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내용은 추론하기 어렵다.

오답파하기 |

- ①, ② 2문단에 따르면 베타맥스는 장면 영화 한 편도 녹화할 수 없고,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후발 주자인 VHS에게 시장의 판도를 뺏겼다. 즉, 베타맥스가 가정용 VCR과 관련되는 영화 산업의 동향에 맞지 않았고, 가격이라는 경제적 요인 때문에 시장의 판도를 뺏긴 것이다. 이처럼 시장의 판도를 빼앗긴 기술은 기술 표준으로 공인받기 어려울 것이다.
- ④ 3문단에 따르면 VCR이 대중화되어 일반 가정에 보급된 이후에도 소비자들은 어느 기술 방식이 시장에서 퇴출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구매보다는 대여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때 어느 기술 방식이 퇴출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은 특정 기술이 표준화되기 전이라는 것이고, 소비자들이 대여를 한다는 것은 특정 기술을 확실히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011

정답 | ③

**해설 |** 내노라하는(×) → 내로라하는(○):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를 뜻하는 ‘내로라하다’가 적절하다. ‘내로라하다’는 역사적으로 ‘나[我]+이+-+오+-+다 → 내로라’에서 온 것이므로 ‘내놓다’와 관련을 지은 ‘내노라’는 틀린 표기이다.

오답파하기 |

- ① 시답지(○): ‘시답다’는 ‘마음에 차거나 들어서 만족스럽다’를 뜻하므로 적절하게 쓰였다. ‘시답다’의 의미로 ‘시답다’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틀린 표기임에 주의해야 한다.
- ② 착잡합니다(○): ‘착잡하다’는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뒤섞여 어수선하다’를 뜻하므로 적절하게 쓰였다. ‘착잡하다’의 의미로 ‘착잡하다’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틀린 표기임에 주의해야 한다.
- ④ 웬지(○): ‘웬지’는 ‘왜 그런지 모르게,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를 뜻하므로 적절하게 쓰였다. ‘웬지’는 ‘왜인지’에서 줄어든 말이므로 ‘웬지’는 틀린 표기임에 주의해야 한다.

## 012

정답 | ④

**해설 | ㉔:** ‘어사또’가 밥을 본 지 오래라고 말하며 밥을 순식간에 먹어 치운 것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밥을 빌어먹는 처지로 속이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이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향단’은 ㉔처럼 말하며 ‘어사또’가 ‘춘향’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울고 있다.

오답파하기 |

- ① ㉑: ‘큰아씨(춘향 모)’가 ‘어사또(몽룡)’를 팔세(팔시)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는 장면이다. 이를 ‘향단’이 ‘춘향’과의 상하 관계 때문에

- ‘어사또’에게 예를 갖춰 대하려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② ㉠: ‘어사또’는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너의 아기씨가 설마 살지 죽을 소냐! 행실이 지극하면 사는 날이 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은 ‘어사또’가 ‘춘향’이 죽을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 ‘어사또’가 손으로 순식간에 밥을 먹어 치우는 것을 보고 비꼬아 표현한 것이다. 이를 ‘춘향 모’는 ‘어사또’가 겪어 왔을 어려움을 짐작하며 상대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013

### 정답 | ①

**해설 |** ㉠: ‘의미’는 인위적인 욕구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체계 속에서 가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 ‘의미’는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피동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한 것으로서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파하기 |

- ② ㉡: ‘욕구’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표현한 욕구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계가 개인에게 가지도록 요구한 욕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 ‘욕구’는 자율적인 표현과 대비되는 욕구라고 볼 수 있다.
- ③ ㉢: ‘재생산’과 소비는 자본주의에서 생산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 ‘재생산’은 소비와 더불어 자본주의가 생산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 ④ ㉣: 소비 중심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새롭게 이해하려는 의도를 지닌 관점에서는 ㉣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을 소비의 유혹으로 지배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다.

## 014

### 정답 | ②

**해설 |** 표현주의는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고, 연민과 같은 감정을 강렬한 색채나 왜곡된 선 등으로 감각적으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표현주의는 현실에 존재하는 감정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하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오답파하기 |

- ①, ③ 표현주의는 외부 세계가 아닌 인간의 내면과 감정에 초점을 두었다.
- ④ 표현주의는 예술의 생성 과정이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015

### 정답 | ③

**해설 |** 제시문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그 편리성에 빠지고 결국은 정보에 대한 일시적 기억 상실을 겪는 디지털 치매 증후군에 빠진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치매에 빠지면 뇌는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기를 꺼리게 된다. 따라서 ㉠ ‘니콜라스 카가 던진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경고’의 내용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우리를 더 의존적으로 만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파하기 |

- ① 제시문에서 디지털 치매는 뇌가 손상을 입게 되는 치매와 다른 일시적인 기억 장애라고 말하고 있다. 제시문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을 질병의 초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② 제시문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인한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새로운 관습을 만든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제시문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맺은 인간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 016

### 정답 | ④

**해설 |** 學案齊眉(들 거/책상 안/가지런할 제/눈썹 미)는 밥상을 눈썹과 가지런하도록 공손히 들어 남편 앞에 가지고 간다는 뜻으로, 남편을 깍듯이 공경함을 이르는 말이다. 이 문장에는 옥이나 돌 따위를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음을 이르는 말인 切磋琢磨(끓을 절/갈 차/다듬을 탁/갈 마)가 적절하다.

### 오답파하기 |

- ① 渾然一體(흐릴 혼/그릴 연/한 일/몸 체)는 생각, 행동, 의지 따위가 완전히 하나가 됨을 뜻한다.
- ② 破廉恥漢(깨뜨릴 파/청렴할 렴/부끄러울 치/한수 한)은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을 뜻한다.
- ③ 深思熟考(깊을 심/생각 사/익을 숙/생각할 고)는 깊이 잘 생각함을 뜻한다.

## 017

### 정답 | ③

**해설 |** ‘철호’는 ‘어머니’에게 만일 북쪽 고향으로 간다면 당장에 죽는 것이라고 말하며, 갖은 이야기를 예로 들어 가며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타일렀다. 이는 북쪽 고향에서 죽을 뻔했던 일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쪽 고향에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말하려고 한 것이다.

### 오답파하기 |

- ① ‘철호의 어머니’는 남한에서의 삶을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게냐.’라고 말하고, 죽어도 고향에 돌아가서 죽고 싶다고 했다.
- ② ‘철호’가 ‘어머니’에게 삼팔선을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 ④ ‘철호의 어머니’는 ‘제 고장으로 제가 간다는데 그대 막을 놈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나.’라고 말하고, ‘철호’가 까닭 없이 고집을 부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 018

### 정답 | ③

**해설 |** ㉠ 앞뒤 문장은 인격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인격으로 인해 자신이나 주변에 피해를 주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내용 전환의 접속어인 ‘그런데’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 앞뒤 문장은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증상을 ‘본질적 나’와 다르다고 인식하여 괴로워하지만, 인격 장애의 경우 인격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신을 구성하는 일부이기에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역접의 접속어인 ‘하지만’, ‘그러나’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 뒤 문장은 인격 장애의 경우 인격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앞의 내용을 부연하는 접속어인 ‘곧’, ‘즉’이 들어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 앞뒤 문장은 서양에서는 불안증이나 우울증을 ‘신발 속의 자갈’로 비유하지만, 인격 장애는 ‘입안의 마늘’로 비유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반면’이 들어가야 한다. ㉠~㉣에 들어갈 말끼리 짝지어진 것은 ③이다.

019

정답 | ①

**해설** | 强直(강할 강/곧을 직)은 의학 용어로 ‘관절 굳음’의 전 용어를 뜻한다. 이 문장에는 마음이 깨끗하고 곧음을 뜻하는 剛直(곧을 강/곧을 직)이 옳다.

오답피하기 |

- ② 奢侈(사치할 사/사치할 치)는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함을 뜻한다.
- ③ 役割(부릴 역/벨 할)은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를 뜻한다.
- ④ 方針(모 방/바늘 침)은 앞으로 일을 치러 나갈 방향과 계획을 뜻한다.

020

정답 | ③

**해설** | (A)는 ‘P이면 Q이다. Q이다. 그러므로 P이다.’라는 형식의 후건 긍정의 오류이다. ‘P이면 Q이다. Q가 아니다. 그러므로 P가 아니다.’라는 형식은 전건 부정의 오류나, 후건 긍정의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 형식이다.

오답피하기 |

- ① (A)는 ‘P이면 Q이다. Q이다. 그러므로 P이다.’라는 형식의 후건 긍정의 오류이고, (B)는 ‘P이면 Q이다. P가 아니다. 그러므로 Q가 아니다.’라는 형식의 전건 부정의 오류이다.
- ② 제시문에 따르면 전건 부정의 오류와 후건 긍정의 오류는 전제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다. (A)는 후건 긍정의 오류, (B)는 전건 부정의 오류이므로 전제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제시문에 따르면 전건 부정의 오류에 해당하는 (가)의 경우 비가 오지 않았더라도 눈이나 안개가 원인이 되어 땅이 젖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오류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건 부정의 오류에 해당하는 (B)는 사람이 독버섯을 먹지 않았더라도, 사고나 질병 등의 다른 원인에 의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오류임을 알 수 있다.

# 모의고사 02회

02회

001 ①	002 ②	003 ④	004 ④	005 ③
006 ④	007 ④	008 ③	009 ③	010 ④
011 ④	012 ④	013 ④	014 ①	015 ④
016 ③	017 ②	018 ①	019 ③	020 ③

001

정답 | ①

**해설** | ‘새로 담긴 김치를 먹어 보아라.’의 ‘보다’는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새로 담긴 김치를 보아라’라는 문장이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보다’가 보조 용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식구들이 모두 집에 돌아왔나 보다.’의 ‘보다’는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이다. ‘식구들이 모두 집에 보다’라는 문장의 의미가 어색하다는 점에서도 ‘보다’가 보조 용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이 모두 보조 용언인 것은 ①이다.

오답피하기 |

- ② ‘그녀는 이 직장에서 20년간이나 일해 왔다.’의 ‘오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그녀는 이 직장에서 20년간이나 왔다’라는 문장의 의미가 어색하다는 점에서도 ‘오다’가 보조 용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삼촌이 할머니께 드릴 꽃을 한 아름 안고 왔다.’는 ‘삼촌이 할머니께 왔다’라는 문장의 의미가 성립하므로 ‘오다’는 본용언임을 알 수 있다.
- ③ ‘게임을 하느라 밥 먹는 시간도 잊어 먹었다.’의 ‘먹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강조하는 보조 동사이다. ‘게임을 하느라 밥 먹는 시간도 먹다’라는 문장의 의미가 어색하다는 점에서도 ‘먹다’가 보조 용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겨울이면 나는 동치미에 냉면을 말아 먹었다.’는 ‘한겨울이면 나는 냉면을 먹었다’라는 문장의 의미가 성립하므로 ‘먹다’는 본용언임을 알 수 있다.
- ④ ‘김 대리는 혼자서 묵묵하게 그 일을 끝내 버렸다.’의 ‘버리다’는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김 대리는 혼자서 묵묵하게 그 일을 버렸다’라는 문장의 의미가 어색하다는 점에서도 ‘버리다’가 보조 용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누나가 사진을 휴지통에 찢어 버렸다.’는 ‘무슨 이유인지 누나가 사진을 휴지통에 버렸다’라는 문장의 의미가 성립하므로 ‘버리다’는 본용언임을 알 수 있다.



## 002

### 정답 | ②

**해설** | 제시문의 밑줄 친 ‘-었-’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반면, ‘지금과 달리 십 년 전 이곳은 논밭이었다.’에서 사용된 ‘-었-’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 오답파하기 |

- ① ‘벌써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구나.’에 사용된 ‘-었-’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 ③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고생만 하였다.’에 사용된 ‘-었-’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 ④ ‘주유소에 가보니 기름값이 너무 올랐다.’에 사용된 ‘-았-’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 003

### 정답 | ④

**해설** | 수고양이(×) → 수고양이(○): ‘수[雌]-’가 붙은 말이 모두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아니다. 즉,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 ‘수-’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하지만,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끼리, 수돼지, 수평아리’에 한한다.

### 오답파하기 |

- ① 입때(○): ‘입때(이ㅂ때)’는 단어가 형성될 때 ‘ㅂ’ 소리가 덧나는 경우 이므로 소리대로 적는다.
- ② 살코기(○): ‘살코기(살ㅎ고기)’는 단어가 형성될 때 ‘ㅎ’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므로 소리대로 적는다.
- ③ 뱀씨(○): ‘뱀씨(벼ㅂ씨)’는 단어가 형성될 때 ‘ㅂ’ 소리가 덧나는 경우 이므로 소리대로 적는다.

## 004

### 정답 | ④

**해설** | ㉓ 닭 앞에[달가페](×) → [다가페](○): ‘닭 앞에’의 ‘닭’과 같이 겹받침을 가진 말은 자음이 하나 탈락하여 대표음으로 바뀐 후,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동하여 [다가페]가 된다.

### 오답파하기 |

- ① ㉑ 발에[바테](○):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② ㉒ 뉘이[넉씨](○):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엿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③ ㉓ 꽃 위[꼬뒤](○):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005

### 정답 | ③

**해설** | ‘밤새 공부를 하느라 피곤하겠다. 시험공부는 많이 했어?’라는 응답은 <보기>의 말에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대화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다.

### 오답파하기 |

- ①, ②, ④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관계성이 아닌 정보성에 초점을 두고 대화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 006

### 정답 | ④

**해설** | 합리적 시각에서는 경제적 조건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제품을 소비하는 것, 기존의 제품이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모두 필요하지 않은 행위이다.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합리적 시각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㉔ ‘불가능하다’는 문맥상 적절하게 쓰였으므로 이를 ‘가능하다’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파하기 |

- ① 소비자가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효용을 얻으려고 여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소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㉑ ‘비합리성’을 ‘합리성’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 ② 일반적으로 제품 소비에 있어 주체의 행위에 기초가 되는 것은 인간의 합리성이라고 인식되어 왔으나, 현대 소비 사회의 특성인 소비 욕구의 재생산 메커니즘은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㉒ ‘합리적인’을 ‘비합리적인’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 ③ 자신의 내부에 있는 욕구가 제품으로 투영되어 그 제품의 소비 욕구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이 제품에 대한 즉각적 소비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감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㉓ ‘이성적’을 ‘감정적’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 007

### 정답 | ④

**해설** | 화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 시름겨워 하다 ‘이웃 아낙네’의 ‘다듬이질 소리’를 들으며 ‘고국’에서 들던 소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위로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시적 화자가 ‘이웃 아낙네’의 시름을 위로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웃 아낙네’와 시적 화자가 ‘다듬이질 소리’를 매개로 서로의 시름을 위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오답파하기 |

- ① ‘불쌍해라, 몸 약해 향기로운 땀 많을 터이니 / 알겠노라, 옥 같은 팔 벌써 매우 지쳤음을’에서 다듬이질하는 ‘이웃 아낙네’의 모습에 대한 시적 화자의 추측과 짐작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지금 타향에서 듣는 소리 서로 비슷하네’에서 ‘다듬이질 소리’가 고향에서 들던 소리와 비슷하다고 여기는 시적 화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불쌍해라, 몸 약해 향기로운 땀 많을 터이니 / 알겠노라, 옥 같은 팔 벌써 매우 지쳤음을’에서 다듬이질하는 ‘이웃 아낙네’에 대한 시적 화자의 연민과 공감을 확인할 수 있다.

## 008

### 정답 | ③

**해설** | 필자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찾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이곳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추측하고 있다. 이를 분석한 자료의 출처를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파하기

- ① 필자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된장, 반찬, 간식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료를 판매하더라도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 ② 필자는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판매되는 물품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판매되는 물품을 지역 농산물과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료로 다양화하고, 축산물도 함께 판매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 ④ 필자는 ‘시장남께서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 009

### 정답 | ③

**해설** | ① ‘잘 익은 딸기’는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에 있는 열매이다. ‘이리 떼’는 무서운 대상이지만, 제시된 작품에 따르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은 조장된 공포감을, ‘딸기’는 그것에 의해 가려진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010

### 정답 | ④

**해설** | ㉔: 화자는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고 있다. 따라서 ‘밤’ 역시 화자를 괴로움, 즉 내적 갈등에 빠지게 만드는 시간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㉔ ‘밤’을 화자가 추구하는 고요한 내면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 오답파하기

- ① ㉑: 화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한다. 따라서 ㉑ ‘하늘’은 화자가 지향하는 궁극적 삶의 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㉒: 화자는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따라서 ㉒ ‘앞새에 이는 바람’은 화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자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㉓: 화자는 ‘부끄럼이 없기’를 바라며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㉓ ‘나한테 주어진 길’은 화자가 숙명으로 여기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011

### 정답 | ④

**해설** | 3문단에 따르면 리오타르는 사유의 방식을 변화시켜야만 몰락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리오타르는 기존의 사유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사유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리오타르가 사유 그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므로, 리오타르는 인류가 몰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유를 배제해야 한다고 보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파하기

- ① 1문단에 따르면 칸트는 계몽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부조리한 권위와 미신을 타파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칸트의 계몽주의는 부조리한 권위의 타파라는 목적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 ② 1, 2문단에 따르면 칸트와 헤겔이 주장한 이성주의에는 전체주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리고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이를 형이상학의 몰락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아도르노가 비판한 형이상학이란 곧 칸트와 헤겔의 철학이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2문단에 따르면 칸트의 견해에는 인류 전체가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치단결해야 한다는 전체주의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헤겔은 보다 강력한 전체주의적 메시지를 보냈다. 따라서 헤겔 역시 인류가 이성의 힘을 발휘하여 공통의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을 것이다.

## 012

### 정답 | ④

**해설** | ‘다람쥐’가 ‘부창부수(夫唱婦隨)’는 남녀의 정이요, 여필종부(女必從夫)는 부부의 의’라고 말하며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맞다. 그러나 ‘계집 다람쥐’가 대등한 부부의 관계를 강조했는지는 알 수 없다.

## 오답파하기

- ① ‘다만 한 번의 만남을 생각하고 다소간 곡식을 께히 허락하여 주었으니’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② ‘서대주는 본래 우리와 향렬이 남과 다름이 없고, 하물며 내외를 상통함도 없으니 다만 한 번의 만남을 생각하고’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③ ‘계집 다람쥐’는 ‘다람쥐’에게 ‘낭군의 말이 그르도다’라고 지적하고 ‘서대주’를 ‘관후장자(寬厚長者)(너그럽고 후하며 점잖은 사람)’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다람쥐’는 ‘서대주’에 대해 ‘계집 다람쥐’와 다른 평가를 내렸음을 알 수 있다.

## 013

### 정답 | ④

**해설** | 2문단에서 플랫폼의 브랜드화는 플랫폼을 이용하기 전에 고객들로 하여금 상품을 사전에 검색해야 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플랫폼 브랜드화를 위해서 제품을 검색하는 이용자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④는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반응이다.

## 오답파하기

- ① 2문단에 따르면 플랫폼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질을 보장해 주어야 활성화될 수 있다.
- ② 1문단에 따르면 백화점에서 여러 부대시설 설치를 대신해 주고, 고객 관리 및 마케팅까지 담당하므로 업체는 백화점에 입점하려 한다.
- ③ 2문단에 따르면 플랫폼을 활용하면 고객들이 상품을 사전에 검색해야 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 014

### 정답 | ①

**해설** | 뒤쳐졌다(×) → 뒤처졌다(○): ‘어떤 수준이나 대열에 들지 못하고 뒤로 처지거나 남게 되다’를 뜻하는 ‘뒤처지다’가 적절하다. ‘뒤처지다’는 ‘물건이 뒤집혀서 젖혀지다’를 뜻한다.

## 오답파하기

- ② 금세(○): ‘금세’는 ‘지금 바로’를 뜻하며 ‘금시에’가 줄어든 말이므로 적절하게 쓰였다. ‘금세’의 의미로 ‘금새’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틀린 표기임에 주의해야 한다.
- ③ 희한하(○): ‘희한하다’는 ‘매우 드물거나 신기하다’를 뜻하므로 적절하게 쓰였다. ‘희한하다’의 의미로 ‘희안하다’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틀린 표기임에 주의해야 한다.
- ④ 통틀어(○): ‘통틀다’는 ‘있는 대로 모두 한데 묶다’를 뜻하므로 적절하게 쓰였다. ‘통틀다’의 의미로 ‘통털다’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틀린 표기임에 주의해야 한다.

## 015

### 정답 | ④

**해설** | 제시문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다) - (나) - (가) - (라)이다. 제시문은 (다) 광대가 상황에 따라 인물, 서술자, 광대 자신으로 역할을 바꿀 수 있음을 설명하고 → (나) ‘춘향가’를 예로 들어 서술자와 특정 인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 (가) 광대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 (라) 마지막으로 광대가 여러 등장인물과 서술자, 광대 자신을 변별하기 위한 능력을 설명하며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 016

### 정답 | ③

**해설** | 제시문은 칼라하리 사막에 살고 있는 원시 유목 민족의 삶을 소개하고 있다. 그들은 무언가를 저장하지 않고, 아낌없이 낭비한다. 자연이 항상 풍요로움을 선사할 것을 믿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그들은 잉여물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삶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오답파하기 |

- ① 칼라하리 사막에 살고 있는 원시 유목 민족은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의 삶으로부터 눈앞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없다.
- ② 칼라하리 사막에 살고 있는 원시 유목 민족은 분명 절대적 빈곤의 상태이긴 하지만 오히려 행복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삶으로부터 절대적 빈곤은 오직 내면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없다.
- ④ 칼라하리 사막에 살고 있는 원시 유목 민족의 삶은 기술의 발전과 무관하다. 따라서 이들의 삶으로부터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없다.

## 017

### 정답 | ②

**해설** | 제시문에는 사회가 윤리 교육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반면 윤리 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모순적인 상황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명제를 뜻하는 二律背反(두 이/법칙 율/등배/돌이킬 반)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파하기 |

- ① 滄海一粟(큰바다 창/바다 해/한 일/조 속)은 넓고 큰 바닷속의 좁쌀한 알이라는 뜻으로, 아주 많거나 넓은 것 가운데 있는 매우 하찮고 작은 것을 이르는 말이다.
- ③ 主客一體(주인 주/손 객/한 일/몸 체)는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됨을 뜻한다.
- ④ 興盡悲來(일 흥/다할 진/슬플 비/올 래)는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 세상일은 순환되는 것임을 이르는 말이다.

## 018

### 정답 | ①

**해설** | ㉠의 앞뒤 문장은 지금은 가솔린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어 있지만, 개발 초기부터 가솔린 자동차가 대중적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에는 역접의 접속어인 ‘그러나’, ‘그런데’가 들어가야 한다. ㉡의 앞뒤 문장은 20세기 초 미국 자동차의 대부분은 증기 자동차였으나, 증기력을 자동차에 이용하는 데에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도 역접의 접속어인 ‘하지만’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 다

음 문장은 증기력을 자동차에 이용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을 추가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에는 순접의 접속어인 ‘그리고’가 들어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 다음 문장은 증기력을 자동차에 이용하는 어려움을 개선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앞선 내용을 정리하는 ‘이와 같이’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에 들어갈 말끼리 묶인 것은 ㉠이다.

## 019

### 정답 | ③

**해설** | 洞察力(밝을 통/살필 찰/힘 력)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뜻한다.

### 오답파하기 |

- ① 義見(옳을 의/볼 견)은 잘못된 표기이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을 뜻하는 意見(뜻 의/볼 견)이 옳다.
- ② 踏事(밟을 답/일 사)는 잘못된 표기이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함을 뜻하는 踏査(밟을 답/조사할 사)가 옳다.
- ④ 間涉(사이 간/건널 섭)은 잘못된 표기이다.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을 뜻하는 干涉(방패 간/건널 섭)이 옳다.

## 020

### 정답 | ③

**해설** | 2문단에서 칸트에 의하면 동정심이 걱정으로 변해 버리면 그것은 이성의 제어를 벗어나게 되고, 걱정에서 따른 행동은 결코 도덕적인 것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걱정적 동정심에서 우러나온 행동 중 도덕적인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오답파하기 |

- ① 1문단에서 칸트에 의하면 동정심은 도덕적 행위의 일관된 기준으로 보기 어렵기에 도덕적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로부터 칸트는 도덕적 행위는 일관된 틀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② 2문단에서 이성적 규범을 벗어난 감정은 반드시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 칸트의 견해에서 추측할 수 있다.
- ④ 1, 2문단에서 칸트는 동정심이 수동성과 맹목성을 지니며, 동정심의 발발은 우연적인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모의고사

## 03회

### 03회

001 ④	002 ①	003 ③	004 ②	005 ①
006 ③	007 ②	008 ④	009 ②	010 ②
011 ④	012 ②	013 ④	014 ②	015 ④
016 ④	017 ③	018 ②	019 ②	020 ②

#### 001

정답 | ④

**해설** | ‘명수는 종이 (세차게) 울리기 전에 문제를 다 풀었다.’와 같이 ‘울리기’는 부사어의 수식이 가능하므로 동사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울리기’는 동사 ‘울리다’의 어간 ‘울리-’에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결합한 것이다.

㉠ ‘동생이 일기에 ‘오늘 3km를 (빠르게) 걸음’이라고 썼다.’와 같이 ‘걸음’은 부사어의 수식이 가능하므로 동사임을 알 수 있다. 이때, ‘걸음’은 동사 ‘걷다’의 어간 ‘걷-’에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이 결합한 것이다.

㉡ ‘그녀는 수줍게 웃음으로써 마음을 대신 전했다.’와 같이 ‘웃음’은 부사어의 수식이 가능하므로 동사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웃음’은 동사 ‘웃다’의 어간 ‘웃-’에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이 결합한 것이다.

**오답파하기** |

㉢ ‘장군은 (전장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장에 나갔다.’와 같이 ‘죽음’은 관형어의 수식이 가능하므로 명사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죽음’은 동사 ‘죽다’의 어간 ‘죽-’에 명사 파생 접사 ‘-음’이 결합하여 품사가 명사로 바뀐 것이다.

㉣ ‘어머니께서 그리신 그림은 정말 아름답다.’와 같이 ‘그림’은 관형어의 수식이 가능하므로 명사임을 알 수 있다. 이때, ‘그림’은 동사 ‘그리다’의 어간 ‘그리-’에 명사 파생 접사 ‘-ㅁ’이 결합하여 품사가 명사로 바뀐 것이다.

#### 002

정답 | ①

**해설** | 차레[차레](×) → [차레](○): ‘ㄷ’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예, 레’ 이외의 ‘ㄷ’는 [ㄷ]로도 발음한다.

**오답파하기** |

㉡ 최근[최근/최근](○): ‘ㄴ’는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니, 기’는 이중 모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다.

㉢ 계시다[계시다/계시다](○): ‘ㄷ’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예, 레’ 이외의 ‘ㄷ’는 [ㄷ]로도 발음한다.

㉣ 다쳐[다쳐](○):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켜, 처’는 [저, 켜, 처]로 발음한다.

#### 003

정답 | ③

**해설** | 꽤었다(○): ‘꽤다’의 어간 ‘꽤-’에 어미 ‘-었-, -다’가 결합하면 ‘꽤었다’가 된다. 이때, 본말 ‘파이다’의 어간 ‘파이-’에 어미 ‘-었-, -다’가 결합한 ‘파였다’로 쓰는 것도 적절하다.

**오답파하기** |

㉠ 서툴었다(×) → 서툴렀다(○): ‘서투르다’의 준말 ‘서툴다’의 경우,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말 ‘서투르다’의 활용형 ‘서툴렀다’로 써야 한다.

㉡ 퍼서(×) → 피워서(○): ‘소란을 피우다’와 같이 타동사로 쓰이고 있으므로 기본형은 ‘피우다’이다. 따라서 어간 ‘피우-’에 어미 ‘-어서’가 결합하면 ‘피워서’가 된다. 이때, ‘꽃이 피다’와 같이 자동사의 쓰임이나, ‘종이를 피다’와 같이 뜻이 다른 타동사의 쓰임과 구별해야 한다.

㉣ 되뇌이곤(×) → 되뇌곤(○): ‘되뇌다’의 어간 ‘되뇌-’에 어미 ‘-곤’이 결합하면 ‘되뇌곤’이 된다. 이때, ‘되뇌이다’는 잘못된 표현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되뇌이곤’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004

정답 | ②

**해설** | ‘팀원 2’는 ‘판매 상품을 조정한다면 가전제품이나 주방 기구보다는 우리 할인점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료품을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판매 상품을 조정해야 한다는 ‘팀원 1’의 제안에 담긴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팀원 2’는 이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 ‘팀원 1’의 제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파하기** |

㉠ ‘팀원 1’은 ‘1인 가구는 생활 특성상 소형과 효율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1인 가구의 생활 특성에 맞추어 판매 상품을 조정해야 합니다.’라며, 주어진 토의의 논제를 고려하여 제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팀원 3’은 ‘두 분 말씀대로 소형, 소용량 상품을 구비하는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규 상품을 도입하기보다는 우선 기존 상품을 소단위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은 어떨까요?’라며, ‘팀원 1’과 ‘팀원 2’가 제안한 취지에 동의하면서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팀장’은 ‘1인 가구의 생활 특성에 맞춰 매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을 소단위로 포장하는 길로 의견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만, 즉석밥이나 라면 같이 유통 기한이 긴 것들은 굳이 소단위로 판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채소와 과일 같은 신선 식품들 위주로 소단위 판매를 하도록 하죠.’라며, 팀원들의 제안을 검토하면서 적절성을 분석하고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 005

정답 | ①

**해설** | ‘달포’는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을 뜻한다.

**오답파하기** |

㉡ ‘해거름’은 ‘해가 서쪽으로 넘어갈 때.’를 뜻한다.

㉢ ‘땅거미’는 ‘해가 진 뒤 어스레한 상태.’를 뜻한다.

㉣ ‘그쫄저께’는 ‘오늘로부터 사흘 전의 날.’을 뜻한다.

## 006

### 정답 | ③

**해설 | ㉔:** 화자는 ‘너던 길 알뜰 잊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고인이 다니던 길이 앞에 있는데 따르지 않고 어찌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즉, ‘너던 길’은 화자가 따르고자 하는 고인의 행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㉔ ‘너던 길’을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수 없다.

### 오답피하기 |

- ① ㉑: 화자는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올흔 말이(인성이 어질다고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㉑ ‘인성(人性)’은 화자가 긍정하는 이상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 ② ㉒: 화자는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녀디 못흐애(이러한 가운데서 한 아름다운 분을 더욱 잊지 못하는구나)’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㉒ ‘피미일인(彼美一人)’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㉓: 화자는 ‘청산(靑山)’과 ‘유수(流水)’를 보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호리라(우리도 그치는 일 없이 언제나 푸르게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㉓ ‘만고상청(萬古常靑)’은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자연의 속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007

### 정답 | ②

**해설 |** ‘메마른 세상을 축축하게 적시는 단비’에서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구호 활동’을 ‘단비’에 빗대어 비유의 표현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호 봉사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오답피하기 |

- ① 비유의 표현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 ③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 ④ 대조의 방식이나, 비유의 표현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 008

### 정답 | ④

**해설 |** ‘남자’는 관객에게 ‘내가 당신에게서 벵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마구 험하게 했었소? 어딜 망가뜨렸소?’라고 말을 건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자’에게 모든 것이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관객에게 말을 건 것이다. 다시 말해 여인에게 한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객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방백이라고 볼 수 없다. 방백이란 등장인물이 말을 하지만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대사를 의미한다.

### 오답피하기 |

- ① ‘남자’는 ‘여자’를 ‘뎌’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뎌’이란 조금 더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자’는 당연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세상에서 빌려 사랑하고,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 ② ‘남자’는 관객에게 ‘내가 당신에게서 벵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마구 험하게 했었소? 어딜 망가뜨렸소?’ 등의 말을 건네어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 ③ ‘남자’는 말을 건넨 관객을 증인으로 내세워 ‘여자’에 대한 사랑을 약속하고 있다.

## 009

### 정답 | ②

**해설 |** 플라톤에 따르면 음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즉, 플라톤의 입장에서 즐거움과 참된 것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참된 음악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는 것은 플라톤의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

## 010

### 정답 | ②

**해설 | ㉒:** ‘도착하다’는 ‘목적한 곳에 다다르다’라는 완료적 의미를 나타내므로, 진행상인 ‘-고 있다’와 어울려 쓰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따라서 ‘들어오고 있다’를 ‘도착하고 있다’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피하기 |

- ① ㉑: ‘별로’는 부정 표현과 함께 쓰여 ‘이렇다 하게 따로, 또는 그다지 다르게’를 뜻하는 부사이다. 따라서 ‘싫어해요’를 ‘좋아하지 않아요’로 고쳐 쓴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③ ㉓: 발표자가 전부 오지 않았다는 것인지, 일부만 오지 않았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를 ‘다는’으로 고쳐 쓴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④ ㉔: ‘~에 위치하다’라는 표현은 영어 번역 투이므로 ‘~에 있다’로 고쳐 쓴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011

### 정답 | ④

**해설 |** ‘평강왕’은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딸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공주’는 자신이 어릴 적에 대왕이 한 말을 식언(食言)(약속한 말대로 지키지 아니함)한다고 문제 삼고 있다. 따라서 ‘평강왕’은 자식이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탓하고 있고, ‘공주’는 왕이 스스로 한 말을 어기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오답피하기 |

- ① ‘평강왕’이 상부 고 씨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공주’가 온달과 직접적인 인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공주’가 아직 온달과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이 아니므로 부부 사이의 믿음을 중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평강왕’이 온달의 부족함을 지적하거나, ‘공주’가 온달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012

### 정답 | ②

**해설 |** ‘나무’를 의인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화자가 ‘나무’로부터 소외감을 위로받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화자는 ‘나무’와 ‘인간’을 대비하여 조화를 이루고 연대하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 오답피하기 |

- ①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그대와 나는 왜 / 숲이 아닌가’라는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인간과 현대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그대와 나는 왜 / 숲이 아닌가’는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숲’을 이루는 ‘나무’들과 ‘숲’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비하여 현대 사회의 소외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 013

### 정답 | ④



**해설** 강연자는 법률상으로는 노년층을 차별하지 않지만, 경제적 지위를 결정할 때에는 유독 노년층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노년층의 경제적 지위가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고려해야겠군.’이라는 것은 강연 내용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다.

**오답파하기**

- ① 강연자는 경제적 지위를 결정할 때 노년층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별로 적절한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노년층을 비롯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므로 강연 내용에 대한 적절한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
- ② 강연자는 경제적 지위를 결정할 때 노년층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령에 따른 처벌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은 강연 내용에 대한 적절한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
- ③ 강연자는 경제적 지위를 결정할 때 노년층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소외당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경제적 지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므로 강연 내용에 대한 적절한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

**014**

**정답** ②

**해설** 제시문에 따르면 컴퓨터의 모든 연산은 ‘예’나 ‘아니요’의 이진 부호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이버 핸드가 달걀을 집는 데 필요한 힘을 섬세하게 조절하기 어렵다. 반면 인간은 ‘매우’, ‘조금’, ‘약간’, ‘보통’ 등의 애매한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로봇도 애매한 표현을 인식할 수 있어야 사이버 핸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파하기**

- ① 제시문에 따르면 컴퓨터는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으나, 사이버 핸드 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은 컴퓨터가 힘을 섬세하게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컴퓨터의 복잡한 계산 과정 때문에 사이버 핸드 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제시문에 따르면 사이버 핸드가 달걀 하나를 집기 위해서는 로봇의 컴퓨터가 센서를 통해 얻은 달걀의 크기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복잡하고 방대한 계산을 해야 한다. 따라서 잡으려고 하는 사물의 크기나 형태를 무시해야 사이버 핸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제시문에 따르면 컴퓨터는 모든 연산이 ‘예’나 ‘아니요’의 이진 부호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힘을 섬세하게 조절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사이버 핸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핸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연산이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제시문의 내용과 상반된다.

**015**

**정답** ④

**해설** 제시문에 따르면 순자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예법에서 찾았다. 이는 인간에게는 예법이 있지만, 동물에게는 예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법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극복한다는 것은 예법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없앨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순자는 예법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파하기**

- ① 순자가 주장한 ‘패도’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과 이상의 접합을 시도한 결과이다. 따라서 순자는 현실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패도’의 필요성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② 맹자는 오직 ‘왕도’를 통해서 난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맹자는 ‘왕도’ 이외에는 난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보았다고 볼 수 있다.
- ③ 순자는 공자의 이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과 이상의 접합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예치 사상이다. 따라서 순자는 공자의 학문을 계승하여 예를 중시한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016**

**정답** ④

**해설** 제시문에서 한류는 중국인들이 서구 문화의 직수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류는 중국인들에게 서구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에 가장 부합한다.

**오답파하기**

- ① 한류가 중국 문화를 서구 문화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한류가 앞장서서 중국 문화를 서구 문화로 이끈다는 뜻이다. 그러나 글쓴이는 한류가 주체가 되어 중국 문화를 서구 문화로 이끌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 ② 글쓴이는 중국인들이 한류에 빠진 것은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는 대체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류가 중국 문화와 서구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 역할을 한다는 것은 글쓴이의 주장과 상반된다.
- ③ 한류가 중국인들이 서구 문화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터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중국인들이 서구 문화로 발전해 나가는 기초를 한류가 제공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글쓴이는 한류가 중국인들이 서구 문화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터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017**

**정답** ③

**해설** 제시문에 따르면 우리 민족은 물질의 빈곤 속에서도 만족함을 알고 여유를 찾으려는 민족이었다. 따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앎을 뜻하는 安分知足(편안 안/나눌 분/알 지/발 족)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파하기**

- ① 無偏無黨(없을 무/치우칠 편/없을 무/무리 당)은 아주 공평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함을 뜻한다.
- ② 兩雄相爭(두 양/수컷 웅/서로 상/다툼 쟁)은 용과 범이 싸운다는 뜻으로, 강자끼리 서로 싸움을 이르는 말이다.
- ④ 天高馬肥(하늘 천/높을 고/말 마/살찐 비)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하늘이 맑아 높푸르게 보이고 온갖 곡식이 익는 가을철을 이르는 말이다.

**018**

**정답** ②

**해설** 時給(때 시/줄 급)은 노동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 이 문장에는 시각을 다룰 만큼 몹시 절박하고 급함을 뜻하는 時急(때 시/급할 급)이 적절하다.

**오답파하기**

- ① 模糊(분뜰 모/풀칠할 호)는 말이나 태도가 흐릿터분하여 분명하지 않음을 뜻한다.

- ③ 資質(재물 자/바탕 질)은 타고난 성품이나 소질 또는 어떤 분야의 일에 대한 능력이나 실력의 정도를 뜻한다.
- ④ 賂物(뇌물 뇌/물건 물)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던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뜻한다.

## 019

정답 | ②

**해설 |** 제시문에 따르면 ㉠‘보유 효과’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 지위, 권력 등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유 효과’에 해당하는 것은 ②이다. ②에서 사람들이 상품을 일정 기간 사용하여 소유하게 되면, 이후에 그것을 반환하여 환불받을 수 있으나 상품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020

정답 | ②

**해설 |** ㄷ. 1문단에 따르면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마련하는 까닭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ㄷ은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 ㄱ. 수입되는 영화용 필름에 1m당 5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수입품의 용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종량세에 해당한다. 그러나 ㄱ은 이를 종가세로 본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ㄴ. 잔류 농약 허용치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수입량을 줄인 것은 세금을 부과한 무역 제한 조치가 아니므로 관세 장벽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 해당한다.